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Home Food Production Frequency Scale

차 성 란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Cha, Sung Ran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Abstract

Difficulties in the measuring home food production activities obstructs development of home production activity related studies. For solving such problems,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e a home food production frequency scal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9 housewives in Taejon. Valid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test home food production frequency scale. The scale's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reveled considerable potential for its use to ascertain relationships between home food production activity and other family variables.

Ⅰ. 서 론

97년말 불어닥친 국가경제적 위기 상황은 가정경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계대출의 상환이 연체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외식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자녀교육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도 감소되고 있다.

IMF 수용이 발표된 후 나타나는 가정생활의 변화를 다룬 일간신문 기사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한 주부는 "지난 주에 외식을 한번 한 것이 무척 후회스럽다"고 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체계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선적인 영역은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임을 잘 나타내 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가사노동 관리전략의 하나로서 가정에서 가족원들이 직접 가정상품(household commodity)을 생산하기보다는 시장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가계의 지출규모를 감소시켜야 할 경우 가족원들은 이전보다 가정생산량을 증가시키 므로써 가정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할 것이다.

가정생산은 체계유지의 기능 외에도 가정생활문화가 형성, 유지, 계승, 발전될 뿐 아니라 부모-자녀간 유대관계가 개선되며, 자녀에 대한 교육적 효과, 가족내 결속력 등 다면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생산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가정생산량,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분담 등 실태조사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사노동 관련 연구를 좀 더 세련화시키려면(sophiscated) 기술적 연구에서 인과관계적 연구로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다른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조사 설문지의 분량이 많아지므로써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관련변수에 대한 조사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가사노동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가사노동을 조사도구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사노동 관련 연구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사노동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가정생산이나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가족원들의 복지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간단히 가정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다른 가능한 영향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개발된 가정생산빈도 측정 도구를 이용하므로써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빈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식생활 영역 가정생산빈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많은 수의 문항으로 자료수집을 해야 했던데 비해 적은 수의 설문문항으로도 자료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가정생산빈도와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동일 연구에서 다룰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가정학내의 여러 연구 영역들이 보다 잘 통합되어질 수 있다(Beutler, Hudson & Owen, 1994). 특히 가정생산 영역 중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것은 생계비 중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결국 중류층 또는 하층의 많은 가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빈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생활 영역에서의 가정생산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좀 더 간결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생산량 측정의 문제점

가정생산은 가정생산활동을 투입요소로 하여 얻어진 산출물이며, 가정생산활동은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물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로서 가사노동 또는 가정노동이라는 용어로 대체사용될 수 있다.

가정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체계 투입과 산출의 총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양적, 질적인 양 측면에서 측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체계의 투입 - 산출요소를 고려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정생산활동이 갖는 중복성, 다양성과 같은 노동적 특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안 중 하나로서 첫째, 가정생산을 위한 투입요소인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생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일기법, 일정 간격으로 구분된 시간표 기입법, 생활행동별 시간기입법(문숙재, 1996) 등이 있다. 이들은 방법에 따라 응답의 난이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방법이 공통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야 하므로 응답자의 기억력이나 개인적 성격차로 인해 정확한 조사자료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Beutler 등(1994)은 역시 식생활 영역에서의 가정생산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일기법을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 방법은 응답자로 하여금, 매우 많은 시간과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안의 두 번째는 가정생산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연구 중에는 가정생산의 빈도를 측정한 연구가 없었으며, 대신 개별 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를 빈도

로 측정하고 있다.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는 해당 가정의 생활양식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가정생산량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 영역별로 사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가정생산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설문문항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문항 수 역시 많아 조사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 스트레스 대처전략, 가족기능의 효율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들을 가정생산 연구에 동시에 포함시켜 그들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다루려면 피조사대상자 1인당 설문지 작성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연구를 위한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Beutler 등, 1994).

2.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빈도에 대한 연구 고찰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가정생산과 가사노동 사회화는 서로 상반되는 상황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사노동 사회화를 중심으로 측정도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활동 측정에 관한 연구로는 "자원제약에 따른 가정생산활동에 관한 연구"(김은희, 1993)가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식생활 영역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 및 상차리기 그리고 김치, 장류, 밑반찬, 간식의 4개 영역에서의 음식장만 문항으로 나누었다. 영역별로 포함된 문항에 대해 가정생산을 하는 경우와 시장상품이나 파출부를 이용한 사회화를 하는 경우, 그리고 반반인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어, 가정생산의 관점에서 생산활동량을 측정한 것이라기보다 가사노동 사회화와 가정생산활동 간의 선택적인 문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연구는 가정생산의 전체 영역을 다루다보니 식생활 영역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국외연구로는 Beutler, Hudson, 그리고 Owen(1994)이 식생활 가정생산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해, 원재료를 이용한 가정생산을 묻는 4개 문항, 혼합재료를 이용한 가정생산에 관한 2개 문항으로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배경이 된 미국과 우리는 식생활 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한 측정도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가사노동 사회화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식생활 영역의 경우 척도를 재화와 서비스 분야로 구분한다. 시장재화를 통한 가사노동 사회화로는 일상적인 식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주식, 부식류에 관한 문항, 전통장류의 사회화에 관한 문항, 떡, 음료 등의 간식류의 사회화에 관한 문항, 냉동류 식품 또는 서구화된 음식종류의 사회화에 관한 문항 등 크게 4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서비스를 통한 가사노동 사회화로는 식품 및 음식 배달서비스, 식품구입 서비스 등의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다(정연주, 1987; 백유진, 1994).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를 측정하는 연구(정연주, 1987; 백유진, 1994)들은 설문문항의 개수가 많은 특징이 있다. 반찬의 경우라도 종류별로 다양한 품목을 포함시키고 있어 정연주(1987)의 연구는 39개 문항, 백유진(1994)의 연구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노동 관리전략의 하나로서 가사노동 사회화를 다룬 연구들은 문항의 개수가 초기

〈표 1〉 식생활 영역 가정생산빈도 측정 도구의 구성 문항

원재료에 의한 가정생산	
	원재료를 이용한 식사준비
	원재료를 이용한 후식준비
	원재료를 이용한 제빵
	야채 또는 과일 재배
반가공 재료에 의한 가정생산	
	혼합재료를 이용한 후식준비
	혼합재료를 이용한 제빵, 음료

출처 : Beutler, C. Hudson, and A. J. Owen(1994). Development of a home food production frequency scale. JCSHE. 18. 253-264.

〈표 2〉 선행연구의 식생활 영역 가정생 빈도 관련 문항

	정연주(1987)	이승미(1989)	김은희(1993)	박미은(1993)	백유진(1994)	이미선(1995)
일상식관련가정생산	· 식품배달 서비스(1) · 배달 주문음식(1) · 대용식(4) · 반찬(4) · 김치(1) · 칼국수(1) · 외식빈도(1) · 콘플레이크(1) · 햄(1) · 통조림(1) · 라면(1) · 전유어 등 행사음식(10)	· 손질한 채소(1) · 밑반찬(1) · 찌개거리(1) · 가족단위 외식 (1) · 주문음식 배달 서비스(1) · 김치(1) · 라면(1)	· 식사준비와 상차리기(3) · 대용식이나 밥(3) · 식사후정리 및 설거지(1) · 김치(1) · 밑반찬 및 젓갈(1)	· 밑반찬(1) · 즉석반찬류(1) · 찌게거리(1) · 음식점이용(1) · 통조림류(1)	· 식품구입 배달 서비스(1) · 배달음식(1) · 가족단위 외식(1) · 찌게거리(1) · 콘플레이크(1) · 밑반찬(1) · 김구이(1) · 김치(1) · 국류(1) · 양념장(1) · 죽류(1) · 잼(1) · 칼국수(1) · 샌드위치(1) · 라면(1) · 통조림(1) · 햄 및 소세지(1) · 젓갈(1)	· 김치(1) · 밑반찬(1) · 찌게거리(1) · 손질한 채소(1) · 배달음식(1) · 가족단위 외식(1) · 라면(1)
장류 및 김장	· 김장김치(1) · 간장(1) · 된장(1) · 고추장(1)	· 된장(1) · 고추장(1)	· 고추장 및 된장(1)	· 국간장, 된장 및 고추장(1)	· 간장(1) · 된장(1) · 고추장(1) · 김장김치(1)	· 된장(1) · 고추장(1)
간식	· 떡(1) · 과자(1) · 빵(1) · 음료(1)		· 간식 및 별식(1)		· 과자(1) · 떡류(1)	
별식	· 냉동만두(1) · 냉동튀김(1) · 스프(1) · 레토르트(1)	· 냉동식품(1)		· 냉동식품(1) · 카레, 짜장, 스프 및 죽(1)	· 피자(1) · 햄버거(1) · 만두(1) · 튀김 냉동식품(1) · 카레나 짜장(1) · 스프(1)	· 냉동식품(1)
계	39 문항	10문항	11문항	8문항	30문항	10문항

연구보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조성은, 1991; 이승미, 1989). 하지만 이들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기준이 없이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문항을 추가 또는 제외시켜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마다 문항의 개수나 내용구성이 상이하여, 이들 척도가 식생활 영역 전체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표 2 참조).

3. 관련 변인

가정생산활동은 가정체계의 투입요소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가족원들의 요구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가정체계의 요구와 자원은 항상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산활동에 대한 요구는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할 것이다. 정연주(1987), 이재희(1991), 김은희(1993), 박미은(1993) 등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수가 적을수록 식생활의 사회화 정도가 높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특히 박미은(1993)의 연구는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가공식품의 이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정지영, 1990; 조성은, 1991)도 있다.

박주희(1993)의 연구결과 막내자녀연령과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막내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된다.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인은 전체적인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계소득은 가정의 사용가능한 경제적 자원 요소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를 증가시키며, 가정생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연주, 1986; 이기영, 1987; 김은희, 1993). 가사노동 서비스에 관한 지출 역시 가계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므로써(조성은, 1991; 박미은, 1993; Strober & Weinberg, 1980; Nickols & Fox, 1983) 가정생산과는 부적관계에 있음을 암시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정연주, 1986; 조성은, 1991 ;김은희, 1993; Yang & Magrabi, 1989). 박미은(1993)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생산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사노동 사회화는 연령이 낮은 젊은 층의 주부들에게 더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정연주, 1986; 이기영, 1987). 확대가족은 예전의 가사노동 수행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니는데 비해 핵가족은 과거의 수행표준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 새롭게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을(조성은, 1991) 고려할 때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은 전통적인 것에 더 가까울 것이며, 따라서 가정생산활동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주부가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를 더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정지영, 1990; 조성은, 1991) 이들의 가정생산활동 빈도가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정우·이미선(1995)의 연구에 의하면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급의 가사조력자가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기(이기영, 1987) 때문에 가정생산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형태와 가사노동 사회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거주 가정이 사회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강정옥, 1983; 정연주, 1987; 조성은, 1991).

이상과 같이 가정생산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족수, 막내자녀연령, 소득, 교육수준, 주부연령, 가족형태, 주부취업여부, 가사조력자, 주택형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정생산빈도와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정생산빈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의 타당성 있는 문항 선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한다. 둘째, 요인

〈표 3〉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를 위한 문항구성

영역	선 정 문 항	삭 제 문 항	선정 문항수
전통 장류	· 고추장이나 된장을 집에서 담가 먹는다		1
김치	· 김치는 집에서 담가 먹는다		1
일상 식	· 콩나물이나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다 · 음식을 만들 때는 시장에서 원재료를 사다가 항상 집에서 다듬거나 손질하여 사용한다 · 돈가스, 완자, 전, 튀김류 등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 · 카레라이스나 햄버거, 스파게티 등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 · 우리 집은 특별음식을 잘 만들어 먹는다	· 다듬거나 손질해 놓은 식품재료를 자주 구입한다 · 즉석 찌개거리를 자주 이용한다 · 조리냉동식품(냉동만두, 냉동튀김류)을 이용한다 · 레토르트 식품(3분카레, 3분짜장)을 이용한다	5
행사 음식	· 가족의 생일상차림 음식은 집에서 장만한다 · 명절이나 집안행사에 쓸 떡은 방앗간에서 해온다 · 송편이나 만두를 집에서 빚는다 · 식혜, 수정과 등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4
간식	· 과일쥬스나 야채즙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 간식거리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2
계			13

분석에서 선정된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 이들이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산출한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가정생산빈도와 관련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 넷째, 역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생산빈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한다.

2. 연구방법

1) 측정도구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에 포함시킬 문항은 Beutler, Hudson, 그리고 Owen(1994)의 연구, 정연주(1987), 정지영(1990), 조성은(1991), 김은희(1993), 백유진(1994)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가정생산빈도 측정을 위한 문항을 선정하는데 있어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고려할 수 있는 국내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안적인 방법으로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를 참고로 모든 식생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문항들을 선정한 결과, 고려할 수 있는 식생활 부문의 가정생산 영역으로는 전통장류, 김치, 일상적인 식사를 위한 반찬류, 행사음식, 간식류 등이었다. 다시 각 영역별로 원재료를 이용한 가정생산활동과 반가공 재료를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반가공 재료를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문항은 가정생산 척도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판단이유로는 첫째, 반가공 재료로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문항을 포함시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동일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의 내용타당도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반가공 재료를 이용한 가정생산활동 문항을 제외시켜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의 전체 문항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원래의 연구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정생산빈도 척도 구성을 위한 문항은 전통장류에 관한 1개 문항, 김치류에 관한 1개 문항, 일상식에 관한 5개 문항, 행사음식에 관한 4개 문항, 간식에 관한 2개 문항 등을 합해 모두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자주'의 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가정생산빈도 척도는 13개 문항의 합산점수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수, 부인 연령 및 학력, 가계소득은 관련 내용을 피조사가 직접 응답토록 하였다. 가정생활주기는 막내자녀연령을 기준으로 취학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엌시설설비수준은 응답자로 하여금 부엌 작업대의 길이, 부엌 면적, 조리기구의 양 등이 어느 정도인지 주관적 판단을 하도록 하여 3개 문항의 응답 점수를 합산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부족하다'의 1점에서 '매우 충분하다'의 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하였다.

중회귀분석에 포함되는 가변수로서 시모는 동거여부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0점', 동거하는 <표 3>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를 위한 문항구성의 경우에 '1점'을 주었으며, 주부취업여부는 전업주부인 경우 '0점', 취업주부인 경우 '1점', 주택소유여부는 임차인 경우 '0점', 자가인 경우 '1점', 조력자 이용 여부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 '0점', 이용하는 경우 '1점'으로 하였다. 주택유형별 가변수는 해당 주택유형이 아닌 경우 '0점', 해당 주택유형인 경우 '1점'을,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0점', 단독주택인 경우 '1점'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기타 유형의 응답자는 빈도수가 적어 저층 및 연립주택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98년 4월 3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동안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1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해 평균, 빈도, 백분률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Ⅳ. 결과분석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가족수는 평균 4.22명이었다. 가정생활주기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가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부인의 연령은 평균 42.87세였으며, 부인의 학력은 평균 11.77년으로서 고등학교 정도까지 수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는 63.8%였으며, 취업주부는 36.2%로서 취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평균 217.39만원이었고, 시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88.1%로 90%를 육박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 75.7%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조력자를 이용하는 비율은 7.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엌시설설비수준은 9.24점으로 중앙값 10점에 미치지 못해 부엌시설 설비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형태는 고층아파트가 가장 많아 42.7%였으며, 단독주택이 35.3%를 나타냈다.

2. 가정생산빈도 척도의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방식으로 하였으며 scree test를 거쳐 적정 요인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표 5). 추출된 4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5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요인 모두 아이겐 값이 1을 넘어 문항간 일치도(interitem consistency)가 인정되었다. 첫째 요인은 일상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가정생산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상적 식생활 유지 가정생산'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요인은 노동집약적인 가정생산활동을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음식과 관련되어 있어, '노동집약적 음식 제공 가정생산'이라 명명하였다. 셋째 요인은 '간식 제공 가정생산'이라 명명하였으며, 넷째 요인은 '특별식 제공 가정생산'이라 명명하였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요구 변인					
가족수		4.22	1.23	1.00	8.00
가정생활주기	취학전		53 (24.3%)		
	초등학교		37 (17.0%)		
	중·고등학교		74 (33.9%)		
	대학이상		54 (24.8%)		
자원 변인					
부인 연령(세)		42.87	9.62	24.00	80.00
부인의 학력(년)		11.77	3.15	6.00	19.00
부인취업여부	전업주부		139(63.8%)		
	취업주부		79 (36.2%)		
가계소득(만원)		217.39	95.92	70.00	500.00
시모 동거여부	동거		26 (11.9%)		
	비동거		193 (88.1%)		
주택소유여부	자가		165 (75.7%)		
	임대		53 (24.3%)		
조력자	이용않음		202 (92.2%)		
	이용함		17 (7.8%)		
부엌시설설비수준		9.24	1.89	5.00	15.00
환경적 변인					
주택형태	단독주택		77 (35.3%)		
	고층아파트		93 (42.7%)		
	저층 및 연립		35 (16.1%)		
	기타		13 (6.0%)		

〈표 5〉 가정생산빈도 척도의 요인 분석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 가족의 생일차림 음식은 집에서 장만한다		0.80			
2. 음식을 만들 때는 시장에서 원재료를 사다가 항상 집에서 다듬거나 손질하여 사용한다		0.74			
3. 김치는 집에서 담가 먹는다		0.58			
4. 우리집은 특별음식을 잘 만들어 먹는다		0.45			
1. 고추장이나 된장을 집에서 담가 먹는다			0.75		
2. 콩나물이나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다			0.69		
3. 식혜, 수정과 등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0.54		
4. 송편이나 만두를 집에서 빚는다			0.47		
1. 과일쥬스나 야채즙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0.84	
2. 간식거리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0.60	
1. 돈가스, 완자, 전, 튀김류 등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					0.59
2. 카레라이스나 햄버거, 스파게티 등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					0.58
3. 명절이나 집안행사에 쓸 떡은 방앗간에서 해온다					-0.71
고유치(eigen value)	7.40	2.27	2.04	1.63	1.46
전체 변량(%)	56.90	17.46	15.69	12.54	11.23
고유 변량(%)	100.00	30.68	27.57	22.03	19.73

3.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의 신뢰도 계수는 0.74로 가정생산빈도 척도를 구성하는 13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가정생산빈도 척도와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가정생산에 대한 요구와 자원 변인들 그리고 가정생산빈도와의 단순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관련 변인들 중 가변수와 연속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양류 상관관계(point bi-serial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가정생산빈도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은 부인의 취업여부, 단독주택 가변수, 부인연령, 부인의 학력, 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조력자 이용여부, 시모 동거여부 등이었다.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고층아파트 가변수 등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예측된 관계의 방향과 상관계수의 부호가 일치하였다. 부엌시설 설비수준의 경우 가정생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결과에서는 상관계수의 부호가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엌시설설비수준이 높으면 가정생산활동을 수행하기에 더 양호한 조건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부엌시설설비수준이 곧 그 가정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저층 및 연립주택 가변수의 상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예측했던 정적 관계의 방향과는 반대로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저층 및 연립주택인 경우 가정생산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이유는 저층아파트 및 연립주택 거주자는 고층아파트 거주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가정생산에 대한 가치관이 고층아파트 거주자보다는 단독주택 거주자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부적관계를 나타낸 데 대한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층 및 연립주택 거주자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가정에서는 식혜, 만두, 야채즙, 돈가스 등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변인과 가정생산빈도 척도와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이 절대 다수이며, 상관계수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정생산빈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표 6〉 가정생산빈도와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상관계수	예측된 관계 방향
요구 변인		
가족수	0.22***	+
가정생활주기	0.21**	+
자원 변인		
부인연령	0.23***	+
부인학력	-0.23***	-
부인취업여부	-0.27***	-
가계소득	-0.07	-
시모 동거여부	0.15*	+
주택소유여부	0.10	+
조력자 이용여부	-0.19**	-
부엌시설설비수준	-0.05	+
환경적 변인		
단독주택	0.26***	+
고층아파트	-0.12	-
저층 및 연립주택	-0.12	+

*p<.05, **p<.01, ***p<.001

5. 가정생산빈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중회귀분석)

요구변인, 자원변인, 환경적 변인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생산빈도 척도를 이용해 측정된 가정생산빈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가정생산빈도는 단독주택 가변수, 부인의 취업여부, 가족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제 변인들이 총분산의 21.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독주택 거주자인 경우보다 단독주택 거주자인 경우, 부인이 취업한 경우보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정생산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정생산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연주(1987)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그리고 단독주택인 경우 가정생산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지영(1990), 조성은(199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의 회귀계수나, 설명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가정생산빈도 측정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생산빈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출된 4개 요인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일상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가정생산빈도는 가족수, 조력자 이용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총분산의 19.69%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가정생산활동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유급조력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노동집약적 음식 제공 가정생산활동으로서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독주택 가변수, 부인의 학력, 부인 취업여부, 시모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총분산의 30.01%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노동집약적 음식 제공 가정생산활동은 단독주택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전업주부인 경우가 취업주부인 경우보다, 시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산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표 7〉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가정생산 전체 β	일상적 식생활유지 β	노동집약적 음식제공 β	간식 제공 β	특별식 제공 β
부인연령	-0.09	0.01	-0.04	-0.08	-0.18
가족수	0.18*	0.20*	0.09	0.01	0.17*
시모 동거여부	0.09	0.01	0.15*	0.03	0.01
가정생활주기	0.14	0.02	0.21	-0.11	0.20
부인학력	-0.07	-0.02	-0.20**	-0.10	0.19*
부인취업여부	-0.22**	-0.14	-0.21**	-0.12	-0.14
가계소득	-0.02	-0.03	-0.02	-0.08	0.09
주택소유여부	-0.02	0.05	-0.09	0.11	-0.06
단독주택 가변수	0.27**	0.14	0.19*	0.12	0.30**
고층아파트 가변수	0.17	0.08	0.03	0.16	0.31*
조력자 이용여부	-0.07	-0.25***	0.03	0.09	-0.05
부엌설비수준	0.01	0.03	-0.03	-0.02	0.06
F 값	4.32***	4.02***	7.00***	1.15	2.18*
R2	21.17	19.69	30.01	6.58	11.81

*p<.05, **p<.01, ***p<.001

좀 더 보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많은 시간의 가정생산활동을 요구하는 전통장류나 원재료를 생산하는 활동까지도 빈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부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주부인 경우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노동집약적 음식 제공 가정생산활동이 빈번해지는 것은 그같은 가정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자원이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동집약적 음식 제공 가정생산은 시모와 동거하므로써 시모의 숙련된 기술, 시모의 가정생산에 대한 가시적, 비가시적 압력이 가해져 가정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식 제공 요인에 포함된 문항수가 2개로 매우 적은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생산 요인별 다중회귀분석은 단지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간식 제공 가정생산빈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요인인 특별식 제공 가정생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독주택 가변수, 고층아파트 가변수, 부인의 학력, 가족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총분산의 11.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식 제공 가정생산은 저층 및 연립주택보다는 단독주택 또는 고층아파트 거주자인 경우에,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빈번하게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독주택 거주자와 고층아파트 거주자, 두 경우에서 특별식 제공 가정생산활동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아, 이는 주택유형에 기인한 차이이기보다 주택유형과 소득계층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상적인 식사와 비교할 때 특별식을 자주 준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수가 적은 경우, 특별식 준비에 따른 가족원 개인별 노력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자주 준비하지 않게 될 것이며 가족수가 많은 경우, 그 반대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생활 영역의 가정생산빈도 척도를 개발하므로써 가정생산활동과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연구를 좀 더 용이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대전에 거주하는 부인 2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 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높으며, 문항간 일관성이 있어 가정생산빈도를 개념적으로 적절히 측정하는 도구임이 밝혀졌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는 내적일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제시된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는 대부분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모든 변인들이 예측된 관계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가계소득이 가정생산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제시한 도구는 가정생산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정체계의 자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가정생산활동은 그보다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선호 등 개인의 사회심리적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중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생산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가정생산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생산빈도 측정도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하여, 총문항의 합산 점수로서 가정생산빈도를 용이하게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를 사용하여 가정생산빈도와 관련될 수 있는 기타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가 좀 더 쉽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산빈도의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도구로서 정착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정생산을 원재료의 생산과 구입된 시장재화를 이용한 생산으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원재료 생산에 대한 문항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러나 원재료 생산 활동은 거주지가 도시, 도시근교, 농촌 지역 중 어느 곳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원재료 생산에 대한 문항을 조사지역에 따라 가감시켜 작성한 측정도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측정도구를 분화시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사노동 사회화의 경우와는 달리 가계소득 변인이 가정생산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추후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생산빈도가 소득보다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지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의문점을 보다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은희(1993). 자원제약에 따른 가정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미은(1993). 취업주부의 시간제약 지각에 따른 가사작업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희(1993).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 분리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유진(1994).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 변인 연구 - 식생활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선(1995). 전문·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희(1991). 도시가정의 가사관련 서비스 구매 및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우·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영(1990).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eutler, I. F., Hudson C., & Owen A. J.(1994). Development of a Home Food Production Frequency Scale.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8, 253-264.

Nickols, S. Y & Fox, K. 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hold Production. *J.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Strober, M. H. & Weinberg, C. 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

Yang, S. J. & Magrabi, F. M. (1989). Expenditure for Services, Wife's Empol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2), 133-147.